



법석 조대 우 뻘디따 스님 뻘디따마법 원장



"항상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는 것은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번뇌를 제거, 통찰력을 얻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나는 말법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불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있는 한 불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지면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자도 기초가 튼튼해야

서울 능인선원(주) 지광 불교대학이 오는 29일 3기 졸업식 가지면서 10만명 졸업생 배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1986년 47명으로 문을 연 이래 16년 만에 이룬 결과로, 한 해 평균 6,300여명이 불교대학을 졸업한 셈이다. 특히 4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이 몇 년 전부터는 한 기수당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 영



남불교대학도 단시일 내에 급속도로 성장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1992년 문을 연 '영남불교대학'은 지난 3월 가진 졸업식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모두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9년부터 매년 3천여 명이 거쳐 갔고, 현재 2년제 과정과 4년제 과정을 합쳐 4천여 명의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

이 두 불교대학은 교육의 질에서도 결코 다른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능인불교대학의 경우 불

교대학을 마친 불자들이 심도 깊은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의 '경전연구반'과 '능인불교대학 법사반', 2년 과정의 '능인불교법사대학원'을 설치해 놓고 있고, 영남불교대학은 재학생들 모두가 봉사활동과 신명활동을 함으로써 실천하는 불자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두 대학을 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불교가 있는 '히딩크 배우기 열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히딩크의 성공전략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기와 체력 등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요사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히딩크식 펀더멘털을 '벤치마킹(Bench Marking)' 하겠다고 법석을 떠는 것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벤치마킹이란 기업들이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를 선정, 상품이나 기술, 경영방식을 배워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응용하는 것이다.

불교대학이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전방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불교대학은 불교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기초가 허약한 불교의 현상향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두 불교대학과 같은 경쟁력있는 교육기관이 계속 나와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반환경적 佛事 동참 안해” 92% 종단차원 ‘불사심의기구’ 필요

조계종 스님·재가자 776명 대상 설문

불자들은 사찰이 반환경적 불사를 시행할 경우 동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단차원의 '불사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표했다.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1

월부터 조계종 소속 스님과 재가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 7일 발표한 '불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인 687명이 '불사심의위원회' 구성에 공감했다. 응답자들은 종단차원의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영향성 검토와 불사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이나 신행을 20년 이상 해온 재가자의 경우 65.5%인 다수가 '불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 문제가,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계의 환경현안인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과 금정산·천성산 고속도로 공사 계획 철회주장도, 친환경적 불사를 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해석이다.

응답자의 또 94%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78%는 사찰이 현재 반환경적인 불사를 추진한다고 지적했으며 92.6%는 사찰이 반환경적인 불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불자들의 환경의식 고조에 따른 교육 및 실천방안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6%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 16%

만이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불자들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신행은 △자기 쓰레기 가지고 가기 △일주된 밥 주자장 이용 △음식물 쓰레기 안만들기 등이었고, 사람 진입로를 비포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84%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과정에서,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해 환경문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 관련기사 3면

강유신 기자 shankook@buddhanews.com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법적 제한

서울시, 보존 악영향 판단땐 인허가 반려

문화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공사 문화재보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 인허가가 합법적으로 반려된다. 서울시가 25일 부터 시행키로 한 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따르면 각 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100m, 시지정 문화재는 50m안에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문화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높이는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최고 높이가 9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 보존지구 △보존지구 △사적건축물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할 때 문화재위원회에 근대건축물 심의 통과(10명)를 두어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미륵대불에 금옷 법주사 개금불사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사건)이 130년만에 '금옷'을 다시 입었다. 법주사는 7일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호국 금동미륵대불 개금불사 회향 및 10만등 점등법요식을 봉행했다. ☞ 관련기사 3면

법주사=고영배 기자



佛心 모아 파이팅... '코리아 16강'

4일 전국민의 관심은 2002년 일 월드컵 한국팀의 경기가 열린 부산 아사이드 주경기장을 모으었다. 한국팀은 이윤용, 홍명보, 설기현, 김남일 등 불자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2:0으로 이겨 16강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한국팀이 골을 성공하자 김포 중앙승가대 정진관에 모인 학인스님들이 환호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북한산 파괴 규탄 불교도대회

24일 조계사 정부 '4·18' 약속사항 불이행 판단

북한산 국립공원과 사찰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불교도대회가 열린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다)는 이날 공동대위가 24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강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북한산국립공원 파괴 정부규탄 불교도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공동대위는 5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4월 18일 임인택 건설부장관이 정다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약속한 △북한산 관동도로 국립공원 구역 6월 말까지 공사 중지 △철거단행차버튼 소 회하 △수회노선을 마련키 위한 협의의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자연환경을 수호하는 불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불교도대회를 갖기로 했다. 강유신 기자

6·15선언 2돌 남북공동법회 6·15남북공동선언 2돌을 기념하는 남북공동법회가 14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종단협이 주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분부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는 정대스님 법어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인사말, 남북공동법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불자는 부다피아 외환카드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중우현,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고쳐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약·한방 병원 진료비 5~20%할인
- 불교전서점 '여사야'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 할인
- 유명레스토랑 및 한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합인서비스(마르토프레시언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퍼드 30원 적립
- 불교구매 누리금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02)725-1132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수행

1. 참선, 기도, 염불, 경전읽기 등 수행을 위해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쓰십니까?
①30분 이하 ②1시간 이하 ③2시간 이하 ④2시간 이상

2.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입니까?
①새벽 ②사시(오전 10시) ③저녁 ④형편대로

설문 참여: 6월 1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투표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4호 9면에 실립니다.

ApplWare

Application Ware Infor Com Co., Ltd.

불교의 미래는 정보화(IT)에 달려 있습니다.

전산 정보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면, 저희 ApplWare (주)에플웨어정보통신을 활용하십시오. ApplWare (주)에플웨어정보통신은 전산 정보화의 축적된 Know-how를 갖고 있습니다.

- 전산화 컨설팅 및 교육
- 하드웨어(PC, 통신장비, 서버)공급 및 구축
- 소프트웨어(홈페이지제작, DB구축) 등 다양한 솔루션제공

저희 ApplWare (주)에플웨어정보통신은 불교정보화를 위한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Tel. 02)582-0101 / Fax 02)582-440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64-10 미성빌딩4층

예술의 전당 시장·봉천
-- 일대역 방면 -- SK주유소 ▲ 남부순환도로
미성빌딩 4층 ● (주)에플웨어정보통신